봄날의 스위스 산책.

봄 햇살 나른한 스위스 산책로

겨울에서 깨어나는 스위스 도시
초록 초록 새싹 돋아나고, 호숫가에는 꽃밭 조성되고
호숫가와 강가, 도심의 신시가지까지
여기에 문화 산책 곁들여 볼까
스위스다운 봄맞이 시간

3 월이 되면 고도가 낮은 도심과 호수에 봄 햇살이 반짝인다. 아직 알프스는 한겨울이다. 봄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산책이다. 아직 산에는 눈이 녹지 않아 산속 하이킹을 하려면 겨울 산책 장비를 챙겨야 하지만, 도시에서의 산책은 따사롭고 쾌적하다. 하이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쉬운 산책로가 도심 한복판과 주변으로 초록 초록하게 펼쳐진다. 봄 햇살에 피어나는 스위스 도시를 거닐어 볼 시간이다.

1. 취리히(Zurich)의 컬처 루트
취리히 지역에서 알프스는 저 멀리서 진중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앙 무대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도시의 매력에 내주고 말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방가르드 극장과 중세 고성부터 유혹적인 쇼핑, 어여쁜 호숫가, 감각적인 미식까지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것이 가까이 있어 자동차나 기차로 이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나른하면서도 문화적 매력을 발산하는 산책 코스를 소개한다.

1) 쉬프바우(Schiffbau)
취리히 서부 지역에 있는 쉬프바우는 원래 배를 만들던 공장이었다. 지금은 극장, 재즈, 혁신적인 미식 공간이 들어서 있다. 과거 산업용 건물이 지금은 보호받는 건축물이 되었다. 예술적인 감각으로 현대화되었고, 세 개의 각기 다른 극장 무대가 들어서 있으며, 재즈 클럽 무즈(Moods)와 패셔너블한 미식 레스토랑 라살(LaSalle),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대단히 쿨한 취리히 서부 지역의 화려한 풍경을 선사하는 스타일리쉬한 바, 니투름바(NietturmBar)도 여기에 있다.

2) 카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
100 여 년 전, 부르주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취리히에 젊은 인습타파주의자들이 다다(Dada) 운동을 형성한다. 후고 발(Hugo Ball), 에미 헤닝스(Emmy Hennings), 트리스탕 차라(Tristan Tzara)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취리히 구시가지 슈피겔가쎄(Spiegelgasse) 1 번지에 있는 카바레 볼테르에 모여 시를 낭독하고 무대에 올렸다. 레닌이 살던 곳에서 모퉁이만 돌면 나오는 곳이었다. 카바레 볼테르는 여전히 대중에 그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 박물관, 극장, 숍, 바가 한곳에 모여있다.

3) 젝세래우텐플라츠(Sechseläutenplatz) 광장
취리히 호수 옆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심 광장이 일 년에 한 번씩 스위스 국민 서커스단, 크니(Knie)의 텐트가 들어서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 우아한 규암으로 포장이 된 바닥과 장난스러운 분수대, 식당이 들어선 광장은 현지인이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분주한 도심 한복판에서 쉬어가기 좋은 공간이 되어준다.

4) 브루노 베버(Bruno Weber) 조각 공원
브루노 베버공원에 발을 들여놓으면, 판타지 세계로 들어간 기분이다. 리마트(Limmat)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공원 이름과 동일한 작가가 만든 이 공간은 잎이 무성한 나무가 많은데,

다채로운 조각이 빚어내는 거대한 상상의 존재가 이국적인 건축물과 어울려 모든 연령의 방문자들을 마법에 빠지게 만든다. 취리히 근교의 슈프라이텐바흐(Spreitenbach)에 있는 공원으로, 자동차나 버스, 기차로 쉽게 찾아갈 수 있다.

5) 리마트(Limmt) 강 아트 트레일
쿨투르베그 리마트(Kulturweg Limmat)라고 불리는 리마트 강 아트 트레일은 베팅엔 수도원(Wettingen Abbey) 아래, 리마트 강 둑 양쪽을 따라 어여쁘게 이어지며, 바덴(Baden) 및 베팅엔-노이엔호프(Wettingen-Neuenhof)의 목조 다리 사이의 아름다운 순환 구간을 형성한다. 가는 길에 유명 스위스 작가의 작품 26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루트는 이정표로 명료하게 안내가 되는데, 연중 찾아볼 수 있다. 주요 지점마다 정보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6) 라인 폭포의 라우펜(Laufen) 성
라우펜중세 고성은 우렁찬 라인 폭포 위 아찔한 절벽 위에 서있다. 전망대는 유럽에서 가장 큰 폭포를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짜릿한 순간을 선사해 준다. 유리로 된 파노라마 엘리베이터가 높은 곳에서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웅장한 고성 안에는 히스토라마(Historama) 전시가 열리는데, 1,000 년이나 된 이 요새와 폭포에 대한 얽히고설킨 스토리를 들려준다.

7) 빈터투어(Winterthur) 미술관
취리히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빈터투어에 있는 미술관은 스위스에서도 손꼽히는 미술관 중 하나다. 100 년도 전에 설립된 미술관은 1995 년, 기공 앤 가이어(Gigon and Guyer)의 스타일리쉬한 증축으로 공간을 확장하기도 했다. 19 세기부터 클래식 모던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인터내셔널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우수해 모든 예술 애호가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8) 이네아 트리 박물관(Enea Tree Museum)
엔조 이네아(Enzo Enea)는 조경 디자인 계의 유명 인사다. 전 세계 왕가와 아랍 왕족, 팝스타를 위한 정원과 공원을 창조해 왔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의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 바로, 라퍼스빌-요나(Rapperswil-Jona)에서다. 전형적인 이네아의 절제 미를 이용해 동양적인 우아함이 돋보이는 나무를 선보이는데,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듯하다. 자연과 문화가 유창한 스타일로 조합된 완벽한 예술 작품을 보여준다.

9) 우페나우(Ufenau) 수도원 섬
우페나우 섬은 취리히 호수에 있는 프라이엔바흐(Freienbach) 및 패피콘(Pfäffikon) 마을 근교에 있는데, 절대적으로 평온한 후광을 발한다. 성지로 꼽히는 곳으로, AD 965 년부터 아인지델른(Einsiedeln) 수도원에 속해 있었다. 지금은 자연보호 구역이다. 수영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금지되어 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방문자라면 두 개의 어여쁜 교회를 둘러볼 수 있는데, 성의 레스토랑에서는 방문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

10) 추크(Zug) 구시가지
취리히에서 조금 떨어진 호숫가 마을이다. 추크의 그림 같은 구시가지는 돌길과 아름답게 복원된 중세 가옥으로 즐비하다. 축 호숫가 바로 옆에 있어 더욱 아름답다. 유서 깊은 시계탑, 시청사, 성 미카엘 교회 등 도시의 명소가 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 “국기(Guggi)” 전망대에서는 구시가지, 고성, 요새탑이 펼쳐지는 화려한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2. 루체른(Luzern)의 신시가지 산책로

루체른 기차역 서쪽, 로이스(Reuss) 강 남쪽으로 히르쉬마트(Hirschmatt)-노이슈타트(Neustadt)라는 구역이 있다. 도심 속을 걸으며 루체른의 신시가지 지역을 탐험해 볼 수 있다. 히르쉬마트는 소규모 상점과 부티크, 갤러리, 레스토랑, 영화관, 바, 클럽, 호텔, 아파트가 모여 있어 생기 넘치고 다채로운 구역이다. 루체른 시내에서도 가장 도회적인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루체른의 과거와 현재를 발견해 볼 수 있다. 산책로는 예수회 교회 옆에 있는 루체른 극장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히르쉬마트슈트라쎄(Hirschmattstrasse) 거리를 따라 걷다가 필라투스슈트라쎄(Pilatusstrasse) 길을 건넌다. 그러면 루체른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공원과 놀이터가 있는 뵈겔리개르틀리(Vögeligärtli)가 나온다. 산책로는 셈파허슈트라쎄(Sempacherstrasse)와 합스부르거슈트라쎄(Habsburgerstrasse) 거리를 지나 헬베티아개르틀리(Helvetiagärtli)에서 끝난다.

3. 툰(Thun)의 아레(Aare) 강 선착장

인터라켄(Interlaken) 근교에서는 아름다운 아레 강가 산책로를 따라 봄날을 즐길 수 있다. 툰(Thun) 구시가지부터 휘니바흐(Hünibach)까지 이어지는 길에 아레 선착장과 브람스(Brahms) 선착장이 있는데, 산책로와 자전거로가 개방되어 있으며,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지역에 펼쳐진 알프스 명봉이 하늘을 수놓는다. 약 2km 에 달하는 산책로는 툰의 뮐레플라츠(Mühleplatz) 광장에서 시작해 오버헤렌하우스(Oberherrenhaus)와 투너호프(Thunerhof) 방향으로 이어진다. 브람스 선착장에 닿으면 분수대 옆 잔디밭에서 햇살 맞이를 할 수 있다. 휘니바흐 선착장에 닿으면 여름철 주말마다 태양 전지로 운항하는 셔틀 보트가 있는데, 샤다우(Schadau) 공원과 호숫가 수영장, 호프슈테텐(Hofstetten)을 이어준다. 6 월부터 10 월까지 운행되는 서비스다.

4. 바젤(Besel) 예술의 길, "레베르거-베그(Rehberger-Weg)"

새로 조성된 레베르거-베그는 바젤 근교의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에 있는 비트라(Vitra) 캠퍼스부터 리헨(Riehen)의 바이엘러(Beyeler) 재단까지 이어지는 6km 의 길이다.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지자체, 두 개의 문화 기관을 잇는 이 트레일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예술가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가 제작한 24 개의 표지판을 따라 다양한 자연과 문화가 있는 풍경을 탐험하며 봄날을 거닐 수 있다.

5. 라인펠덴(Rheinfelden)의 영혼을 위로하는 하이킹

스위스 북쪽 국경 지대, 라인펠덴에는 다양한 테마의 트레일이 있다. 특히 여유로운 하이킹로가 많아 봄날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프릭탈(Fricktal) 계곡 지역의 구릉지는 가파른 오르막이 전혀 없다.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지 않아도 즐거운 하이킹 체험이 되어준다. 대부분의 트레일은 낭만적인 라인펠덴 구시가지에서 시작한다. 라인우퍼 룬드베그(Rheinufer-Rundweg) 트레일을 따라 강 풍경을 거닐어도 좋고, 홉펜 & 말츠(Hopfen & Malz) 트레일에서 맥주 양조 기술을 발견해 보아도 좋고, '하얀 금가루'라 불렸던 소금을 찾아 떠나보아도 좋다. 이정표 설치가 세심하게 되어 있어 쉽고 편리하게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다. 취리히와 바젤에서 금세 찾아갈 수 있는 거리라 더욱 좋다.

6. 루가노(Lugano) 몬테 브레(Monte Brè) 산의 아트 트레일

브레 마을 구시가지는 예술적인 디테일과 조각으로 풍성하다. 여기서 로컬 아티스트의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데, 빌헬름 슈미트(Wilhelm Schmid), "레이엔(Leièn)"이라고 불리는 파스칼레 지라르디(Pasquale Gilardi)의 작업을 감상할 수 있다. 아트 트레일은 마을 광장에 있는 성당 앞에서 시작하는데, 그림 같은 마을을 통과한다. 가는 길에 빌헬름 슈미트 박물관을 지나는데, 그의 작품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아트 테마 트레일은 치르콜로 파스칼레 지라르디 "레이엔"과 비스아르테(Visarte)의 콜라보로 탄생하였다. 더 많은 볼거리가 성 피델레 & 시모네(Saints Fidele and

Simone) 성당에서 기다리고 있다. 17 세기 및 18 세기의 아름다운 프레스코화와 페인팅으로 장식되어 있는 공간이다. 묘지에도 볼거리가 있다. 바로, 대리석으로 만든 평화의 여신 동상이다.

7. 루가노(Lugano)의 올리브 나무 트레일(Olive Tree Trail)
루가노 호수 너머로의 풍경을 선사하는 올리브 나무 트레일은 이탈리아어로 "센티에로 델 올리보(Sentiero dell'olivo)"라 불린다. 거리가 3.5km 나 되는 길에는 18 개의 정보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올리브 나무 성장 및 올리브 오일에 대한 역사와 과학 정보를 알려준다. 길 자체가 지중해풍 풍경을 따라 이어져 즐거운 봄날을 즐길 수 있다. 카스타뇰라(Castagnola)와 간드리아(Gandria) 마을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트레일은 올리브 과수원 옛 터와 그 후로 다시 재배되는 올리브 농가를 지난다. 카스타뇰라의 옛 주민센터 근처나 간드리아의 마을 위 주차장 근처에서 트레일로 접근할 수 있다. 카스타뇰라에서 투어를 시작한다면 간드리아에서 포를레차-루가노(Porlezza-Lugano)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 버스 정류장은 레스토랑 간드리아 근처에 있다. 간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카스타뇰라도 루가노 호수 유람선으로 찾아갈 수 있다.

8. 몽트뢰(Montreux) 선착장
몽트뢰(Montreux)에는 부둣가 여럿이 레만(Léman) 호수를 따라 13km 가 넘게 이어져 있다. 부둣가를 이어주는 호반 산책로를 따라 거닐다 보면 주변 산들의 멋진 경관과 이국적인 꽃, 야자나무가 이루는 풍경에 감탄하게 된다. 지역의 온화한 기후를 십분 활용해 도시의 정원사들은 호숫가를 화려하고 향기로운 이국의 나무와 꽃들로 다양하게 꾸몄고, 이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호반 조경 자체가 몽트뢰를 더욱 유명하게 해주고 있다.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특별한 가드닝을 오로지 12 월부터 5 월 동안에만 클라렁스(Clarens)와 떼리떼(Territet) 사이에서 볼 수 있다. 바로 식물 조각이다. 몽트뢰 호반의 장터 앞에는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의 동상이 서있다. 퀸(Queen) 멤버들과 함께 몽트뢰의 카지노로 사용되었던 마운틴 스튜디오(Mountain Studio)에서 마지막 앨범 "메이드 인 해븐(Made in Heaven)"을 녹음하며 몇 년간 몽트뢰에서 거주한 인연이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 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